

K팝 그룹 4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이름 올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K팝 그룹 4팀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9일 빌보드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과 미니앨범 'BE'는 각각 102위, 141위에 올랐다. 두 앨범은 발매 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각각 총 70주, 31주 동안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세븐틴 사진=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지켰다.

보이그룹 세븐틴은 미니 8집 '유어 초이스' (Your Choice)로 15위에 올랐다. 세븐틴이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15년 데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니 6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 (Taste Of Love)는 60위를 기록하며 2주째 차트를 지켰다. 이 앨범은 직전 주 빌보드 200에서 K팝 걸 그룹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인 6위로 데뷔한 바 있다.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는 발매 3주 차에도 82위로 차트에 진입했다. 지난 5월 31일 발매된 이 앨범은 발매 첫 주 빌보드 200에서 이 그룹의 앨범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5위로 진입했다. 발매 2주 차에도 34

인 6위로 데뷔한 바 있다.

'빌보드 200'은 싱글 차트인 '핫 100'과 함께 빌보드의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히며, 팬덤의 크기나 충성도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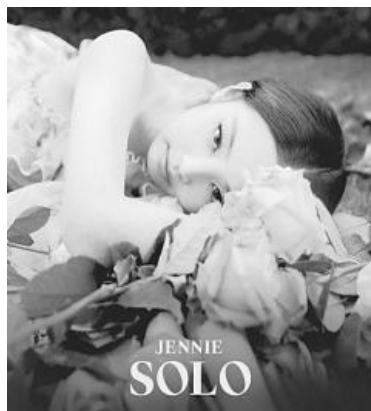
제니 '솔로', 스포티파이 3억 스트리밍 ... 한국 솔로 처음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 기록을 작성했다.

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제니의 솔로곡 '솔로(SOLO)'는 전날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3억회를 돌파했다.

한국의 솔로 아티스트의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3억 스트리밍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니의 '솔로'는 작년 10월 이 플랫폼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뛰어넘으며 한국 솔로 가수 최대 스트리밍 곡으로 등극한 바 있다.

제니는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 첫 주자로 지난 2018년 11월 '솔로'를 발표했다. 이별 후에도 슬픔



▲ "블랙핑크" 제니. 사진=YG 엔터테인먼트

에 웬대이지 않는 당당한 면모를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로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발매 당시 한국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일간·주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또 한국 밖에서도 40개 지역 아이튠즈 1위, 한국 여자 솔로 최초의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톱10을 달성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8월 데뷔 5주년을 맞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블랙핑크 더 무비'를 선보인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4+1 프로젝트(PROJECT)'의 일환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TS '버터', 스포티파이 '송스 오브 서머' 선정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를 '송스 오브 서머(Songs of Summer)' 플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한국 가수의 곡이 이 리스트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스포티파이는 '송스 오브 서머' 리스트를 발표했다. 스포티파이는 2015년부터 매년 그해 여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들을 선별해 리스트를 만들어오고 있다.

올해는 '버터'를 비롯해 에드 시런의 '배드 헤비츠', 브루노 마스의 '리브 더 도어 오픈',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등 총 25곡을 선정했다.

스포티파이는 "여름이 주는 설렘에는 음악이 늘 함께했다."면서 "올해 송스 오브 서머를 비롯해, 기존에 접해볼 수 없던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나만의 기분, 상황, 나만의 여름에 맞춰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또 "방탄소년단의 위상과 음악성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에드 시런,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급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공개된 '버터'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1천104만2천여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발매 첫날 스트리밍 횟수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종전 기록은 에드 시런과 저스틴 비버가 2019년 세운 '아이 돈 케어' (1천97만7천여회)였다.

방탄소년단은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등 인기 물이를 이어가고 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